

정채영 국어 2019. 2. 23. 서울시 7급(A) 해설

1. '효(孝)'와 관계된 사자성어가 아닌 것은?

- ① 斑衣之戲 ② 斷機之戒
③ 陸績懷橘 ④ 望雲之情

[정답] ②

[정답 풀이]

② '斷機之戒(단기지계)'는 학문을 중도에서 그만두면 짜던 베의 날을 끊는 것처럼 아무런 쓸모가 없음을 경계한 말이므로 '효(孝)'와 관계가 없다.

[오답 풀이]

① 斑衣之戲(반이지희): 늙어서 효도함을 이르는 말. 중국 초나라의 노래자가 일흔 살에 늙은 부모님을 위로하려고 색동저고리를 입고 어린이처럼 기어 다녀 보였다는 데서 유래한다.

③ 陸績懷橘(육적회귤): "육적이 귤을 가슴에 품다"라는 뜻으로, 지극한 효성을 비유하는 말이다. 중국 삼국 시대 오나라의 육적이 6세 때 원술을 뵈고, 그 집에서 내놓는 귤 세 개를 가슴 속에 숨겨 어머니에게 드리려 했던 고사에서 유래된다.

④ 望雲之情(망운지정): 자식이 객지에서 고향에 계신 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

2. 의미 관계와 단어들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 ① 동의 관계(synonymy) - 근심 : 시름
② 반의 관계(antonymy) - 볼록 : 오목
③ 상하 관계(hyponymy) - 할아버지 : 손자
④ 부분 관계(meronymy) - 코 : 얼굴

[정답] ③

[정답 풀이]

③ 상하 관계란 한 단어의 의미가, 다른 단어의 의미를 포함하거나 다른 단어의 의미에 포함되는 의미 관계를 말한다. 따라서 '할아버지 : 손자'는 상하 관계가 아니다.

[오답 풀이]

① '동의 관계'란 두 개 이상의 단어가 서로 소리는 다르나 의미가 같은 의미 관계로서, 개념적 의미와 연상적 의미가 같아서 모든 문맥에서 교체가 가능하다. '근심'은 '해결되지 않은 일 때문에 속을 태우거나 우울해함.'을 뜻하고, '시름'은 '마음에 걸려 풀리지 않고 항상 남아 있는 근심과 걱정'을 뜻하므로 '근심 : 시름'은 동의 관계로 볼 수 있다.

② 반의 관계란 의미가 반대되거나 대립되는 단어들의 의미 관계로서, 단어들이 반의 관계를 이루려면 한 개의 의미 요소만 다르고 나머지 의미 요소들은 공통적이어야 한다. '볼록'은 물체의 거죽이 조금 도드라지거나 솟 내밀린 모양을, '오목'은 가운데가 동그스름하게 푹 패거나 들어간 모양을 뜻하는 단어로 '모양'이라는 공통 요소가 있고, 의미가 서로 반대되므로 '볼록 : 오목'은 반의 관계로 볼 수 있다.

④ 부분 관계란 상하 관계 중 전체와 부분의 관계를 나타내는 분석적 관계를 의미한다. '코 : 얼굴'은 '부분'과 '전체'에 해당하므로 부분 관계로 볼 수 있다.

3. 다음의 음운 변동 사례 중 옳은 것은?

교체, 탈락, 축약, 첨가의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 경우 음운 개수의 변화가 나타나기도 한다. 먼저 ㉠ '집입[집닐]'은 첨가 및 교체가 일어나 음운의 개수가 늘었다. 그런데 ㉡ '닭만[당만]'은 탈락만 일어나 음운의 개수가 줄었고, ㉢ '뜻하다[뜨타다]'는 축약만 일어나 음운의 개수가 줄었다. 한편 ㉣ '말는[만는]'은 교체가 두 번 일어나 음운의 개수가 2개 증가하였다.

- ① ㉠ ② ㉡ ③ ㉢ ④ ㉣

[정답] ①

[정답 풀이]

㉠ '집입'은 앞 음절과 관계없이 뒤 음절이 모음 'ㅣ'로 시작될 때 'ㄴ'이 첨가되어 [집닐]로 발음된 후(첨가), 파열음 'ㅍ'이 비음 'ㄴ'을 만나 비음 'ㄹ'으로 바뀌는 비음화 현상(교체)에 의해 [집닐]로 최종 발음된다. '집입'의 음운 수는 'ㄱ/ㅣ/ㅍ/ㅣ/ㄹ'로 5개이고, [집닐]의 음운 수는 'ㄱ/ㅣ/ㄹ/ㅣ/ㄹ'로 6개이므로 음운의 개수가 1개 늘었다.

▶ 초성의 'ㅇ'은 음운의 개수로 세지 않는다.

[오답 풀이]

㉡ '닭만'은 겹받침 'ㄹ'이 자음군 단순화(탈락)로 인해 'ㄱ'이 되어 [닥만]으로 발음된 후, 파열음 'ㄱ'이 비음 'ㄹ'을 만나 비음 'ㅇ'으로 바뀌는 비음화 현상(교체)에 의해 [당만]으로 최종 발음된다. '닭만'의 음운 수는 'ㄷ/ㅏ/ㄹ/ㅏ/ㄴ'으로 6개이므로 음운의 개수가 1개 줄었다. 따라서 '탈락'만 일어났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뜻하다'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교체)에 의해 [뜨타다]로 발음된 후, 받침의 'ㄷ'이 'ㅎ'과 만나 거센소리 'ㅌ'으로 바뀌는 거센소리되기(축약)에 의해 [뜨타다]로 최종 발음된다. '뜻하다'의 음운 수는 'ㄸ/ㅡ/ㅏ/ㅎ/ㅏ/ㄷ/ㅏ'로 7개이고, [뜨타다]의 음운 수는 'ㄸ/ㅡ/ㅌ/ㅏ/ㅏ/ㄷ'로 6개이므로 음운의 수가 1개 줄었다. 따라서 '축약'만 일어났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말는'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교체)에 의해 [만는]으로 발음된 후, 파열음 'ㄷ'이 비음 'ㄴ'을 만나 비음 'ㄹ'으로 바뀌는 비음화 현상(교체)에 의해 [만는]으로 최종 발음된다. '말는'의 음운 수는 'ㄹ/ㅏ/ㅌ/ㄴ/ㅡ/ㄴ'으로 6개이고, [만는]의 음운 수는 'ㄹ/ㅏ/ㄴ/ㅡ/ㄴ'으로 6개이므로 음운의 개수는 변함없이 그대로이다. 따라서 음운의 개수가 2개 증가하였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4. 밑줄 친 부분의 문장 성분이 다른 하나는?

- ① 지금도 나는 어머니의 말씀이 기억난다.
② 그 학생이 아주 새 사람이 되었더라.
③ 바로 옆집에 삼촌이 사신다.
④ 5월에 예쁜 꽃을 보러 가자.

[정답] ②

[정답 풀이]

② '아주'는 부사로서, 관형사인 '새'를 수식하고 있으며 문장 성분은 부사어이다. 부사어는 주로 용언을 수식하지만, 용언 외에 관형어나 다른 부사어, 문장을 수식하기도 하고, 문장이나 단어를 이어 주기도 한다. 나머지는 모두 체언을 수식하는 관형어이다.

[오답 풀이]

① '어머니의'는 체언 '어머니'에 관형격 조사 '의'가 붙은 것으로, 뒤에 오는 체언 '말씀'을 수식하고 있으므로 관형어이다.

③ '바로'의 품사는 부사이지만, 뒤에 오는 체언 '옆집'을 수식하고 있으므로 문장 성분은 관형어이다.

정채영 국어 2019. 2. 23. 서울시 7급(A) 해설

④ ‘예쁜’은 형용사 ‘예쁘다’의 어간 ‘예쁘-’에 관형사형 전성 어미 ‘-ㄴ’이 결합한 것으로서, 뒤에 오는 체언 ‘꽃’을 수식하고 있으므로 문장 성분은 관형어이다.

[더 알아보기] 문장 성분의 종류

주성분	주어	동작 또는 상태나 성질의 주체가 되는 문장 성분 [찾는 방법] 누가, 무엇이 예) 건우가 옷는다.
	서술어	주어의 동작, 상태, 성질 따위를 풀이하는 기능을 하는 문장 성분 [찾는 방법] 어떠한, 어떠한, 무엇이다 예) 물이 맑다.
	목적어	서술어의 동작 대상이 되는 문장 성분 [찾는 방법] 무엇을 예) 진희가 옷을 샀다.
	보어	‘되다, 아니다’와 같은 서술어의 필수 성분으로 기능하는 문장 성분 [찾는 방법] ‘되다, 아니다’의 앞에 위치 예) 철수는 중학생이 아니다.
부속 성분	관형어	체언(명사, 대명사, 수사)을 수식하는 문장 성분 [찾는 방법] 어떤 예) 진희가 새 옷을 샀다.
	부사어	서술어, 관형어, 다른 부사어 등을 수식하는 문장 성분 [찾는 방법] 어떻게 예) 건우가 활짝 웃는다.
독립 성분	독립어	문장의 어느 성분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문장 성분 예) 아! 달이 참 밝구나.

5. <보기>를 참고하여 문장에 실현되는 높임법을 분석할 때,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보기>

국어의 높임법에는 주체 높임법, 객체 높임법, 상대 높임법이 있다. 이처럼 다양한 높임법을 체계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아래의 예와 같이 이들 높임법이 문장에 나타날 때와 그렇지 않을 때를 ‘+’와 ‘-’로 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예) 영수가 동생에게 과자를 주었습니다.

(-주체, -객체, +상대)

- ① 어머니께서 영희에게 과자를 주셨다.
(+주체, -객체, -상대)
- ② 영희가 할머니께 과자를 드렸다.
(-주체, +객체, +상대)
- ③ 어머니께서 영희에게 과자를 주셨습니다.
(+주체, -객체, +상대)
- ④ 어머니께서 할머니께 과자를 드리셨습니다.
(+주체, +객체, +상대)

[정답] ①

[정답 풀이]

① “어머니께서 영희에게 과자를 주셨다.”는 높임의 주격 조사 ‘께서’와 높임의 선어말 어미 ‘-시-’를 사용하여 주체인 ‘어머니’를 높이고 있으므로 ‘+주체’, 객체인 ‘영희’를 높이는 표현이 없으므로 ‘-객체’, 상대 높임법 중 ‘해라체’를 사용하여 ‘주셨다’라고 하였으므로 ‘+상대’로 표시해야 한다.

[오답 풀이]

② “영희가 할머니께 과자를 드렸다.”는 주체인 ‘영희’를 높이는 표현이 없으므로 ‘-주체’, 높임의 부사격 조사 ‘께’와 ‘주다’의 높임말인 ‘드리다’를 사용하여 객체인 ‘할머니’를 높이고 있으므로 ‘+객체’, 상대 높임법 중 ‘해라체’를 사용하여 ‘드렸다’라고 하였으므로 ‘+상대’로 표시해야 한다.

③ “어머니께서 영희에게 과자를 주셨습니다.”는 높임의 주격 조사 ‘께서’와 높임의 선어말 어미 ‘-시-’를 사용하여 주체인 ‘어머니’를 높이고 있으므로 ‘+주체’, 객체인 ‘영희’를 높이는 표현이 없으므로 ‘-객체’, 상대 높임법 중 ‘하십시오체’를 사용하여 ‘주셨습니다’라고 하였으므로 ‘+상대’로 표시하는 것이 옳다.

④ “어머니께서 할머니께 과자를 드리셨습니다.”는 높임의 주격 조사 ‘께서’와 높임의 선어말 어미 ‘-시-’를 사용하여 주체인 ‘어머니’를 높이고 있으므로 ‘+주체’, 높임의 부사격 조사인 ‘께’와 ‘주다’의 높임말인 ‘드리다’를 사용하여 객체인 ‘할머니’를 높이고 있으므로 ‘+객체’, 상대 높임법 중 ‘하십시오체’를 사용하여 ‘드리셨습니다’라고 하였으므로 ‘+상대’로 표시하는 것이 옳다.

[더 알아보기] 높임의 표현

구 분	높임의 대상	높임의 실현 방법
상대 높임법	화자의 말을 듣는 상대	• 종결 어미
주체 높임법	서술어의 주체 주어가 가리키는 대상	• ‘께서, -(으)시-’ 등 • ‘편찮다, 갑시다’ 등
객체 높임법	서술어의 객체 동작의 행위가 미치는 대상	• ‘께’ • ‘여쭙다, 드리다, 뵙다’ 등

6. 다음은 두보의 시 《곡강(曲江)》의 일부이다. () 안에 들어갈 말로 옳은 것은?

조정에서 돌아오면 봄옷을 저당 잡히고,
매일 강어귀에서 만취되어 돌아오네.
술빛은 늘 가는 곳마다 있건만,
인생 ()은 예로부터 드물구나.
꽃 속으로 날아드는 나비는 그윽하고,
물 위로 풍지를 닿을 듯 나는 잠자리는 유유하네.
내 전하고픈 말은 풍광과 함께 흐르노니,
잠시나마 서로 즐기고 부디 저버리지 말라는 것이라네.

- ① 오십
- ② 육십
- ③ 칠십
- ④ 팔십

[정답] ③

[정답 풀이]

제시된 글의 “인생 ()은 예로부터 드물구나.”를 통해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이 ‘고희(古稀)’, 즉 ‘칠십’임을 알 수 있다. ‘고희(古稀: 옛 고, 드물 희)’는 고래(古來)로 드문 나이란 뜻으로 일흔 살을 이르며, 두보의 <곡강시(曲江詩)>에 나오는 말이다.

[더 알아보기] 나이를 나타내는 말

• 충년(沖年): 10세 안팎의 어린 나이

정채영 국어 2019. 2. 23. 서울시 7급(A) 해설

- 지학(志學): 15세
- 과년(瓜年): 여자 나이 16세 / 남자 나이 64세
- 방년(芳年), 묘년(妙年): 20세 안팎의 꽃다운 여자 나이
- 약관(弱冠): 남자 나이 20세
- 이립(而立): 30세
- 이모(二毛): '이모지년(二毛之年)'의 준말. 32세
- 불혹(不惑): 40세
- 망오(望五): 41세
- 상년(桑年): 48세
- 지명(知命), 지천명(知天命), 애년(艾年): 50세
- 망육(望六): 51세
- 이순(耳順): 60세
- 화갑(華甲), 회갑(回甲), 환갑(還甲), 망칠(望七): 61세
- 진갑(進甲): 62세
- 고희(古稀), 종심(從心), 희수(稀壽), 희년(稀年): 70세
- 망팔(望八): 71세
- 희수(喜壽): 77세
- 산수(傘壽): 80세
- 망구(望九): 81세
- 미수(米壽): 88세
- 졸수(卒壽) · 구질(九秩): 90세
- 망백(望百): 91세
- 백수(白壽): 99세
- 기이지수(期頤之壽) · 상수(上壽): 100세

7. 다음 글의 내용을 이해한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몸과 마음의 관계에 대한 전통적인 이원론에 따르면 마음은 몸과 같이 하나의 대상이며 몸과 독립되어 존재하는 실체이다. 독립된 존재란 다른 것에 의존하지 않는 존재라는 뜻이다. 몸이 마음 없이도 그리고 마음이 몸 없이도 존재할 수 있다는 주장이 실체이원론이며, 이 이론을 대표하는 철학자로 통상 데카르트가 언급된다. 기계와 이성이 서로를 배제한다는 생각은 이원론적 사고의 한 유형이라고 간주할 수 있다. 두뇌를 포함한 몸은 그것의 크기, 무게, 부피, 위치 등의 물리적 속성을 가지고 있는 반면, 마음은 물리적 속성을 결여한 비물리적 실체이다. 이성을 가지는 것은 기계가 아니라 전혀 다른 어떤 실체이다.

- ① 이원론은 물리적 실체와 마음이 서로 불가분의 관계라고 보겠군.
- ② 이원론은 몸이 비물리적 실체일 수 있다고 보겠군.
- ③ 이원론은 마음이 없는 몸이 가능하다고 보겠군.
- ④ 이원론은 몸이 없는 마음이 불가능하다고 보겠군.

[정답] ③

[정답 풀이]

제시된 글의 “이원론에 따르면 마음은 몸과 같이 하나의 대상이며 몸과 독립되어 존재하는 실체이다.”와 “몸이 마음 없이도 그리고 마음이 몸 없이도 존재할 수 있다는 주장이 실체이원론이며”를 통해 ③의 진술이 적절함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제시된 글에서 “이원론에 따르면 마음은 몸과 같이 하나의 대상이며 몸과 독립되어 존재하는 실체이다.”라고 하였다. 따라서 마음과 몸이 서로 불가분의 관계라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② 제시된 글에서 “몸은 그것의 크기, 무게, 부피, 위치 등의 물리적 속성을 가지고 있는 반면, 마음은 물리적 속성을 결여한 비물리적 실체이다.”라고 하였다. 따라서 몸이 비물리적 실체일 수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④ 제시된 글에서 “몸이 마음 없이도 그리고 마음이 몸 없이도 존재할 수 있다는 주장이 실체이원론이며”라고 하였다. 따라서 몸이 없는 마음이 불가능하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8. 주어진 단어를 의미를 가진 요소들로 더 이상 나눌 수 없을 때까지 나누었을 때 그 요소의 수가 가장 많은 것은?

- ① 파김치
- ② 짜임새
- ③ 주름살
- ④ 지름길

[정답] ②

[정답 풀이]

발문에서 “의미를 가진 요소들로 더 이상 나눌 수 없을 때까지 나누”라는 것은 형태소를 분석하라는 뜻이다. 형태소는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를 말한다.

② 짜임새: 짜-(어근)/-이-(접사)/-로-(접사)+-새(접사) ⇨ 4개

[오답 풀이]

① 파김치: 파(어근)/김치(어근) ⇨ 2개

③ 주름살: 주름(어근)/살(어근) ⇨ 2개

④ 지름길: 지르-(어근)/-로(어미)/길(어근) ⇨ 3개

9. ‘欲速則不達, 見小利則大事不成’과 뜻이 가장 잘 통하는 속담은?

- ① 첫술에 배부르랴.
- ② 내 코가 석 자다.
- ③ 공든 탑이 무너지랴.
- ④ 바늘허리 실 매어 못쓴다.

[정답] ④

[정답 풀이]

欲速則不達, 見小利則大事不成(욕속즉부달, 견소리즉대사불성): 빨리 하고자 하면 도달하지 못하고, 작은 이익을 보려 하면 큰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 《논어》

⇨ 바늘허리 실 매어 못쓴다: 아무리 급해도 일에는 일정한 순서와 절차가 있다는 말

[오답 풀이]

① 첫술에 배부르랴: 어떤 일이든지 단번에 만족할 수는 없다는 말

② 내 코가 석 자다: 내 사정이 급하고 어려워져 남을 돌볼 여유가 없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③ 공든 탑이 무너지랴: 공들여 쌓은 탑은 무너지 리 없다는 뜻으로, 힘을 다 하고 정성을 다하여 한 일은 그 결과가 반드시 헛되지 아니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10. 다음 글에서 주된 표현 기법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는 표현은?

내 그대를 생각함은 항상 그대가 앉아 있는 배경에서 해가 지고 바람이 부는 일처럼 사소한 일일 것이나 언젠가 그대가 한없이 괴로움 속을 헤매일 때에 오랫동안 전해오던 그 사소함으로 그대를 불러 보리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그대를 사랑하는 까닭은 내 나의 사랑을
한없이 잇닿은 그 기다림으로 바꾸어 버린 데 있었다. 밤이 들
면서 골짜기엔 눈이 퍼붓기 시작했다. 내 사랑도 어디쯤에선 반
드시 그칠 것을 믿는다. 다만 그때 내 기다림의 자세를 생각하
는 것뿐이다. 그동안에 눈이 그치고 꽃이 피어나고 낙엽이 떨어
지고 또 눈이 퍼붓고 할 것을 믿는다.

- ① 사소함 ② 괴로움
③ 기다림 ④ 생각함

[정답] ①

[정답 풀이]

세시된 시는 황동규의 〈즐거움 편지〉로, 반어적 표현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시에서 화자는 그대를 생각하는 일은 “해가 지고 바람이 부는 일처럼 사소한 일”이라고 자신의 사랑을 자연 현상에 빗대어 지극히 사소한 것으로 표현하고 있으나, 이는 ‘그대’에 대한 사랑이 소중한 것임을 강조하기 위한 반어적 표현이다. 예컨대 숨 쉬는 일은 지극히 사소한 일이지만 그 사소한 일을 하지 못하면 죽게 되므로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게 되는 것처럼, 이 시 또한 ‘사소한’이라는 반어적 표현을 통해 자신의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강조하고 있다.

[더 알아보기] 황동규, 〈즐거운 편지〉

이 시는 사랑과 기다림을 주된 제재로 삼아,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을 지속
적인 기다림을 통해 극복해 나가겠다는 굳은 의지를 노래하고 있다. 고통스럽
지만 자연이 순환하는 것처럼 자신의 사랑과 기다림도 계속될 것이라는 믿음을
드러내고 있다. 사랑을 자연 현상에 빗대어 표현한 참신한 발상과 반어적
표현을 통해 이루지 못할 사랑으로 인한 그리움을 감성이 풍부한 서정적인 어
조로 형상화하고 있다.

11. 다음 시와 시대적 배경이 같은 작품은?

하꼬방 유리 딱지에 애새끼들
얼굴이 불타는 해바라기마냥 걸려 있다.

내려 쫓이던 햇살이 눈부시어 돌아선다.
나도 돌아선다.

울상이 된 그림자 나의 뒤를 따른다.
어느 접어든 골목에서 걸음을 멈춰라.

젯더미가 소복한 울타리에
개나리가 망울졌다.

- ① 김승옥의 <무진 기행>
- ② 황석영의 <삼포 가는 길>
- ③ 이문구의 <우리 동네 김 씨>
- ④ **화순위의 <나무들 비탈에 서다>**

[정답] ④

[정답 풀이]

제시된 시는 구상의 <초토의 시 1> 일부분(1~4면)이다. 시어 중 ‘하교방(판
갓길, 피란민 마을)’과 ‘갯더미가 소복한 울타리’ 등을 통해 이 시가 6.25 전
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선택지 중 이와 시대적 배경이 같
은 작품은 ④ 황순원의 <나무들 비탈에 서다>로, 이 소설은 6.25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을 겪은 젊은이들의 전후(戰後)의 정신적 방황과 갈등을 통하여 인
간 구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김승옥의 〈무진 기행〉: 주인공인 '나'가 서울을 떠나 무진으로 갔다가 다시 서울로 돌아오는 '떠남-추억의 공간-복귀'의 순환 구조를 통해 1960년대의 허무와 회의 의식을 드러내고 있는 작품
- ② 황석영의 〈삼포 가는 길〉: 1970년대 이후 급속하게 진행되었던 농촌의 해체와 근대화 과정에서 고향을 잃고 떠도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그린 작품
- ③ 이문구의 〈우리 동네 김 씨〉: 1977년에 발표된 단편 소설로, 농민인 김 씨를 통해 가뭄에 지친 농가의 실상과 민방위 교육을 통한 국가 정책의 현실을 잘 드러낸 작품

[더 알아보기] 구상, 〈초토의 시 1〉

‘초토(焦土)’는 불에 타서 검게 그을린 땅이나 불에 탄 것처럼 황폐해지고 못 쓰게 된 상태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 ‘무덤, 폐허가 된 전쟁터’를 의미한다. 전쟁과 분단의 현실에서 오는 민족 전체의 아픔을 드러내는 시어이다. 〈초토의 시 1〉은 6.25 전쟁이 빚어낸 비극적 현실을 제재로 한 15편의 연작시 중 제1편에 해당하는 작품으로, 처참한 현실에 대한 절망과 탄식을 극복하고, 형제애와 인류애가 전쟁의 비극이나 이데올로기에 우선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12. 어휘의 형성 체계가 다른 것은?

- ① 손쉽다 ② 맛나다
③ 시름없다 ④ 남다르다

[정답] ②, ④ (복수 정답)

[정답 풀이]

이 문제는 ‘맞나다’를 파생어(《표준국어대사전》에 접미사 ‘-나다’가 붙은 예로 등재되어 있음)와 합성어(출제자의 의도)로 보는 두 가지 견해가 대립됨에 따라 복수 정답으로 처리되었다.

1. ‘맛나다’를 파생어로 볼 경우: ② ‘맛나다’는 ‘어근(맛) + 접미사(-나다)’로 구성된 파생어이고, 나머지는 모두 ‘어근 + 어근(손 + 쉽다, 시름 + 없다, 남 + 다르다)’으로 구성된 합성어이다.
2. ‘맛나다’를 합성어로 볼 경우: ④ ‘남다르다’는 ‘부사어(남과) + 서술어(다르다)’의 구조를 보이는 통사적 합성어이고, 나머지는 모두 ‘주어 + 서술어(손이 쉽다, 맛이 나다, 시름이 없다)’의 구조를 보이는 통사적 합성어이다.

정채영 국어 2019. 2. 23. 서울시 7급(A) 해설

13. 다음의 작품들을 시대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가) 雨歇長堤草色多
送君南浦動悲歌
大同江水何時盡
別淚年年添綠波

(나) 생사의 길은
여기 있으니 두려워하고
나는 간다는 말도
못다 이르고 가느냐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여기 저기 떨어지는 나뭇잎처럼
한 가지에 나고 서도
가는 곳을 모르는구나
아으, 미타찰(彌陀刹)에 만날 나
도(道) 닦아 기다리리.

(다) 翩翩黃鳥
雌雄相依
念我之獨
誰其與歸

(라) 이화우(梨花雨) 훗뿌릴 제 울며 잡고 이별(離別)혼 님
추풍(秋風) 낙엽(落葉)에 저도 날 생각는가
천리(千里)에 외로운 꿈만 오락가락 호노매

- ① (가) - (다) - (나) - (라)
- ② (가) - (다) - (라) - (나)
- ③ (다) - (가) - (나) - (라)
- ④ (다) - (나) - (가) - (라)

[정답] ④

[정답 풀이]

제시된 작품을 시대순으로 나열하면 (다) - (나) - (가) - (라)가 된다.

(다) 유리왕의 <황조가>: 고구려 유리왕 3년에 지은 고대 가요

(나) 월명사의 <제망매가>: 신라 경덕왕(8세기) 때 지은 10구체 향가

(가) 정지상의 <송인>: 고려 인종(12세기) 때 지은 한시

(라) 계량의 <이화우 훗뿌릴 제>: 조선 시대(16세기)의 시조

14. <보기>를 참고할 때, 다음 중 형태소의 교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형태소의 교체는 자동적 교체와 비자동적 교체로 나눌 수 있다. 자동적 교체는 필수적으로 일어나야 하는 교체를 말하며, 비자동적 교체는 반드시 일어나야 할 필연적 이유가 없는 교체를 말한다.

(가) 알-: 알+는 ⇨ [아:는]

(나) 안-: 안+고 ⇨ [안:꼬]

(다) 아름답-: 아름답+은 ⇨ [아름다운]

(라) 먹-: 먹+는 ⇨ [멍는]

- ① (가)는 국어에 ‘ㄹ’과 ‘ㄴ’이 연속될 때 ‘ㄹㄴ’이 함께 발음될 수 없다는 제약으로 인해 예외 없이 용언 어간의 종성 ‘ㄹ’이 탈락하는 자동적 교체의 예이다.
- ② (나)는 국어에 ‘ㄴ’과 ‘ㄱ’이 연속될 때 ‘ㄱ’이 경음으로 발음된다는 제약으로 인해 예외 없이 어미 ‘-고’는 [꼬]로 발음되는 자동적 교체의 예이다.
- ③ (다)는 국어에 ‘ㅂ’과 ‘ㅇ’이 연속될 때 ‘ㅂ’이 아니라 [ㅇ]으로 발음된다는 제약으로 인해 어미 ‘-은’이 [ㅇ]으로 발음되는 자동적 교체의 예이다.
- ④ (라)는 국어에 ‘ㄱ’과 ‘ㄴ’이 연속될 때 ‘ㄱ’이 비음 ‘ㅇ’으로 발음되는 것은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규칙은 아니므로 비자동적 교체의 예이다.

[정답] ①

[정답 풀이]

① (가)의 ‘알+는 ⇨ [아:는]’은 어간의 ‘ㄹ’이 ‘-ㄴ, -ㄹ, -ㅂ, -ㅅ, -ㅇ’로 된 어미 앞에서 탈락되는 ‘ㄹ’ 탈락의 예로, 규칙 활용에 해당한다. 규칙 활용은 요건만 충족된다면 필수적으로 일어나므로 (가)는 자동적 교체의 예이다.

[오답 풀이]

② (나)의 ‘안+고 ⇨ [안:꼬]’는 어간 받침 ‘ㄴ(ㄴ), ㄹ(ㄹ)’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소리 ‘ㄱ, ㄷ,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는 된소리되기 현상의 예이다. 다만, ‘안기다[안기다], 감기다[감기다], 굶기다[굶기다], 옮기다[옮기다]’와 같이 피동사동의 접미사 ‘-기-’는 된소리로 발음하지 않는다는 예외가 존재하므로 (나)는 비자동적 교체의 예이다.

③ (다)의 ‘아름답+은 ⇨ [아름다운]’은 어간의 끝소리 ‘ㅂ’이 모음 앞에서 ‘ㅇ’으로 바뀌는 ‘ㅂ’ 불규칙 활용의 예이다. 불규칙 활용은 환경에 따라 어간이나 어미의 모습이 다르게 활용하므로 (다)는 비자동적 교체의 예이다.

④ (라)의 ‘먹+는 ⇨ [멍는]’은 파열음(ㄱ, ㄷ, ㅂ)이나 유음(ㄴ, ㄹ)이 비음(ㄴ, ㄹ)을 만나 비음(ㄴ, ㄹ)으로 발음되는 비음화 현상의 예이다. 비음화 현상은 요건만 충족된다면 필수적으로 일어나므로 (라)는 자동적 교체의 예이다.

정채영 국어 2019. 2. 23. 서울시 7급(A) 해설

15.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양우(兩友)의 말이 불가하다. 진주 열 그릇이나 켄 후에 구슬이라 할 것이니. 재단(裁斷)에 능소능대(能小能大) 하다 하나 나 곧 아니면 작의(作衣)를 어찌하리오. 세누비 미누비 저른 솔 긴 옷을 일우미 나의 날래고 빠름이 아니면 잘게 뜨며 굵게 박아 마음대로 하리오. 척 부인이 자혀 내고 교두 각시 버혀 낸다 하나 내 아니면 공이 없으려든 두 벗이 무삼 공이라 자랑하냐뇨.”

- ① 서술자는 ‘세요 각시’, 즉 ‘바늘’이다.
- ② 자기 자랑을 하기에 앞서 타인의 공을 인정하고 있다.
- ③ ‘능소능대(能小能大)’는 몸의 크기가 자유자재로 변화하는 것을 말한다.
- ④ ‘척 부인’과 ‘교두 각시’는 각각 ‘자’와 ‘인두’를 가리킨다.

[정답] ①

[정답 풀이]

제시된 글은 〈규중칠우쟁론기〉의 일부분이다. 〈규중칠우쟁론기〉에는 ‘척 부인(자), 교두 각시(가위), 세요 각시(바늘), 청홍 흑백 각시(실), 감토 함미(골무), 인화 부인(인두), 올 남자(다리미)’가 나오는데, 그중에서 제시된 부분은 ‘세요 각시(바늘)’가 침선의 공을 자랑하는 부분이다. 이는 “세누비 미누비 저른 솔 긴 옷을 일우미 나의 날래고 빠름이 아니면 잘게 뜨며 굵게 박아 마음대로 하리오.”라고 말하는 부분을 통해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 ② “재단(裁斷)에 능소능대(能小能大) 하다 하나 나 곧 아니면 작의(作衣)를 어찌하리오.”라고 말하는 부분에서 알 수 있듯이, 타인의 공을 인정하기보다는 자기 자랑에 주력하고 있다.
- ③ ‘능소능대(能小能大)’는 모든 일에 두루 능하다는 뜻이다.
- ④ “척 부인이 자혀(재어) 내고 교두 각시 버혀 낸다 하나”를 통해 ‘척 부인’이 ‘자’, ‘교두 각시’가 ‘가위를 의인화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인두’는 ‘인화 부인’으로 의인화되었다.

[더 알아두기] 작자 미상, 〈규중칠우쟁론기〉

이 글은 규방의 부인이 바느질에 사용하는 자, 가위, 바늘, 실, 골무, 인두, 다리미 등 일곱 가지의 사물을 의인화하여 쓴 한글 수필이다. 일반적인 고전 수필과 달리 3인칭 관찰자 시점을 취하여 규중 칠우의 대화를 객관적 입장에서 보여 주는 점이 독특하다. 칠우의 공치사와 불평 속에는 인간의 이기적인 세태에 대한 풍자와, 직분에 따라 성실한 삶을 추구해야 한다는 교훈이 담겨 있으며, 칠우가 자신의 주장을 당당하게 펼치는 모습 속에서 봉건 사회 속에서 변화해 가는 여성상 또한 발견할 수 있다.

16. 다음에 제시된 문장은 주동문과 사동문 그리고 능동문과 피동문이 다. 다음 중 사동문과 피동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가) 내가 책을 읽었다.
(나) 선생님께서 나에게 책을 읽히셨다.
(다) 우리가 산을 뵙니다.
(라) 산이 우리에게 보인다.

- ① 사동문과 피동문의 서술어인 사동사와 피동사는 모두 파생어이다.
- ② 사동문과 피동문에는 행위의 주체에 해당되는 문장 성분이 필수적으로 제시된다.
- ③ 사동문과 피동문에 나타난 부사어는 각각 주동문의 주어와 능동문의 주어이다.
- ④ 주동문이 사동문으로 전환될 때나 능동문이 피동문으로 전환될 때 서술어의 자릿수에 변화가 나타난다.

[정답] ②

[정답 풀이]

(가)는 주동문, (나)는 사동문, (다)는 능동문, (라)는 피동문이다. 주어가 동작을 직접 하는 것을 ‘주동(主動)’이라고 하고, 주어가 남에게 동작을 하도록 시키는 것을 ‘사동(使動)’이라고 한다. 또한 주어가 동작을 자기의 힘으로 하는 것을 ‘능동(能動)’이라고 하고, 주어가 다른 주체에 의해서 동작을 당하게 되는 것을 ‘피동(被動)’이라고 한다.

② 사동문 (나)에서 ‘읽는’ 행위의 주체는 ‘나’이다. 사동사인 ‘읽히다’에는 ‘나에게’와 같이 ‘~에게’ 형태의 부사어가 필수적으로 제시된다. 피동문 (라)에서 ‘보느’ 행위의 주체는 ‘우리’이다. 피동사인 ‘보이다’는 ‘산이 보인다’와 같이 부사어를 반드시 필요로 하지는 않으므로 ‘우리에게’는 필수적으로 제시될 필요가 없다.

[오답 풀이]

① 사동문 (나)의 서술어인 사동사 ‘읽히다’는 동사 ‘읽다’에 ‘사동’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히-’가 결합된 것이므로 파생어이다. 피동문 (라)의 서술어인 피동사 ‘보이다’는 동사 ‘보다’에 ‘피동’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이-’가 결합된 것이므로 파생어이다.

③ 사동문 (나)의 부사어인 ‘나에게’는 주동문 (가)에서 ‘내가’로 바뀌어 주어 역할을 한다. 피동문 (라)의 부사어 ‘우리에게’는 능동문 (다)에서 ‘우리가’로 바뀌어 주어 역할을 한다.

④ 주동문 (가)의 서술어 ‘읽었다’는 주어(내가)와 목적어(책)을 요구하는 두 자리 서술어이고, 사동문 (나)의 서술어 ‘읽히셨다’는 주어(선생님께서), 부사어(나에게), 목적어(책)을 요구하는 세 자리 서술어이다. 따라서 주동문이 사동문으로 전환될 때는 서술어의 자릿수에 변화가 나타난다.

능동문 (다)의 서술어 ‘뵙니다’는 주어(우리가)와 목적어(산)을 요구하는 두 자리 서술어이고, 피동문인 (라)의 서술어 ‘보입니다’는 주어(산)만을 요구하는 한 자리 서술어이다. 따라서 능동문이 피동문으로 전환될 때는 서술어의 자릿수에 변화가 나타난다.

17. 다음의 어휘들은 통시적으로 변화된 양상을 보여 준다. 이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가) 놈: ‘사람 평칭’ ⇨ ‘남자의 비칭’
(나) 겨레: ‘종친, 친척’ ⇨ ‘민족, 동족’
(다) 아침밥 > 아침
(라) 맛비 > 장맛비

- ① (가)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의미가 축소된 예이다.
- ② (나)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의미가 확대된 예이다.
- ③ (다)는 형태의 일부가 생략된 후 나머지에 전체 의미가 잔류한 예이다.
- ④ (라)는 형태의 일부가 덧붙여진 후에도 전체 의미가 변하지 않은 예이다.

[정답] ④

[정답 풀이]

(라) ‘맛비’는 ‘장마’의 옛말로 ‘여름철에 여러 날을 계속해서 비가 내리는 현상이나 날씨. 또는 그 비’를 뜻한다. ‘장맛비’는 ‘장마 때에 오는 비’를 뜻하므로 전체 의미가 변하지 않은 예로 볼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가)의 ‘놈’은 ‘사람 평칭(사람을 높이지도 낮추지도 않고 범상하게 부르는 말)’에서 ‘남자의 비칭(남자를 낮추는 뜻으로 이르는 말)’으로, 즉 ‘사람 전체 ⇨ 남자’로 범위가 축소되었으므로 의미가 축소된 예로 볼 수 있다.

② (나)의 ‘겨레’는 ‘종친’, ‘친척’에서 ‘민족’, ‘동족’을 이르는 말로 범위가 확대되었으므로 의미가 확대된 예로 볼 수 있다.

③ (다)의 경우 ‘아침밥’에서 ‘밥’을 생략하여도 ‘아침’이 ‘아침밥’을 의미하게 되었으므로 형태의 일부가 생략된 후 나머지에 전체 의미가 잔류한 예로 볼 수 있다.

정채영 국어 2019. 2. 23. 서울시 7급(A) 해설

18. 밑줄 친 조사의 성격이 다른 하나는?

- ① 인생은 과연 뜬구름과 같은 것일까?
- ② 누구나 영수하고 친하게 지낸다.
- ③ 고등학교 때 수학과 영어를 무척 좋아했다.
- ④ 나와 그 친구는 서로 의지하는 사이였다.

[정답] ③

[정답 풀이]

③에서 '과'는 둘 이상의 사물이나 사람을 같은 자격으로 이어 주는 접속 조사이다. 이때 '과'는 경우에 따라 생략이 가능하며, 생략된 자리에는 심표를 찍는다. 나머지는 모두 격 조사이다.

[오답 풀이]

①에서 '과'는 다른 것과 비교하거나 기준으로 삼는 대상임을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이다.

②에서 '하고'는 상대로 하는 대상임을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이다.

④에서 "나와 그 친구"는 의지하는 대상이므로 '와'는 '상대'의 의미를 지닌 부사격 조사이다.

[더 알아두기] 조사의 종류

격 조사	자립성이 있는 말에 붙어 그 말과 다른 말과의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 줌.	마린이 병커에 들어간다. ⇒ '마린'에 주어의 자격을 부여함.
보조사	선행하는 체언에 보다 정밀한 뜻을 보태 주는 역할을 함.	나만 꽃을 싫어한다. ⇒ 체언 '나'에 '오직'이라는 뜻을 보태 줌.
접속 조사	두 단어를 같은 자격으로 이어 주는 역할을 함.	나와 너는 학생이다. ⇒ '나와' '너'를 이어 주는 역할을 함.

19. 다음의 밑줄 친 부분에 대한 현대어 해석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내 상해 ㉠ 낯드려 낯오의 돌히 머리 세도록 사다가 흙피 죽자 하시더니 엇디하야 나를 두고 자내 묻져 가시는 날하고 죽식하며 뒤 괴걸하야 엇디하야 살라 하야 다 더디고 자내 묻져 가시논고 자내 날 향히 막으물 엇디 가지며 나는 자내 ㉡ 향히 막으물 엇디 가지던고 피양 자내드려 내 낯오더 혼되 누어서 이 보소 늬도 우리ㄴ티 서러 예엿세 너겨 스랑하리 늬도 우리 ㄴ튼가 하야 자내드려 니르더니 엇디 그런 이롤 생각디 ㉢ 아녀 나를 버리고 묻져 가시논고 자내 ㉣ 여회고 아막려 내 살 세업스니 수이 자내 혼되 가고져 하니 날 드려 가소

- ① ㉠ 나를 따라서
- ② ㉡ 향하여
- ③ ㉢ 아니하여
- ④ ㉣ 여의고

[정답] ①

[정답 풀이]

제시된 글은 <원이 엄마가 이응태에게>라는 한글 편지로, 세상을 먼저 떠난 남편을 그리워하며 아내가 쓴 글이다. 1998년 안동시 경상동 택지 조성 공사를 위해 고성 이씨 집안의 묘를 이장하던 중 이응태의 묘에서 발견되었다. 여기서 ㉠ '낯드려'는 '나에게'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

[더 알아두기] 현대어 풀이

자내(당신)이 늘 나에게 말하기를 돌이 머리가 하얘지도록 살다가 함께 죽자 하시더니 어찌하여 나를 두고 자내(당신) 먼저 가시는가. 나하고 자식은 누구를 의지하여 어떻게 살라고 다 버리고 자내(당신) 먼저 가시는가. 자내는 날 향해 마음을 어떻게 가졌고 나는 자내를 향해 마음을 어떻게 가졌던가. 항상 자내에게 내가 말하기를 함께 누워서 이 보소 남도 우리 같이 서로 어여뵈여 기고 사랑할까. 남도 우리 같을까 하며 자내에게 말했는데 어찌 그런 일은 생각지 않고(아니하여) 나를 버리고 먼저 가시는가. 자내를 여의고 아무래도 내가 살 수가 없으니 빨리 당신에게 가고자 하니 나를 데려가소.

20. 다음 글의 ㉠~㉣에 들어가기에 가장 옳은 것으로 짝지은 것은?

스토리는 시간적 순서대로 배열된 사건의 서술이다. (㉠)도 사건의 서술이지만 인과 관계에 역점을 둔다. '왕이 죽고 왕비가 죽었다'는 스토리이지만, '왕이 죽자 왕비도 슬퍼서 죽었다'는 (㉡)이다. 시간적 순서는 마찬가지로이지만 인과의 감각이 첨가된다. 또한 '왕비가 죽었다. 그러나 왕의 죽음 때문이라고 알게 될 때까지는 아무도 그 원인을 알 수 없었다'고 한다면 이것은 신비를 간직한 (㉢)이며, 고도의 전개가 가능한 형식이다. 그것은 시간의 맥락을 끊고 한계가 허락하는 한 스토리에서 비약시키고 있다. 왕비의 죽음을 생각할 때 만약 그것이 스토리가 될 경우엔 우리는 (㉣) 하고 물을 것이며, (㉠)의 경우엔 (㉣) 하고 물을 것이다.

- | | | |
|-------------|--------|--------|
| ㉠ | ㉡ | ㉢ |
| ① 플롯(plot) | 왜? | 그 다음엔? |
| ② 플롯(plot) | 그 다음엔? | 왜? |
| ③ 테마(theme) | 언제? | 왜? |
| ④ 테마(theme) | 그 다음엔? | 왜? |

[정답] ②

[정답 풀이]

문맥상 ㉠에는 '플롯(plot)', ㉡에는 '그 다음엔?', ㉢에는 '왜?'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므로 ②가 정답이다.

㉠: 뒤에서 "인과 관계에 역점을 둔다"고 하였으므로 ㉠에는 '플롯'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플롯(plot, 구성)'은 문학 작품에서 형상화를 위한 여러 요소들을 유기적으로 배열하거나 서술하는 일을 뜻한다.

▶ 유기적(有機的): 생물체처럼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각 부분이 서로 밀접하게 관련을 가지고 있어서 떼어 낼 수 없는, 또는 그런 것

㉡: 제시된 글에서 "스토리는 시간적 순서대로 배열된 사건의 서술"이라고 하였으므로 ㉡에는 시간적 순서에 따라 다음에 일어날 일을 물어보는 '그 다음엔?'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 '플롯(㉠)'은 "인과관계에 역점을 둔다"고 하였으므로 인과 관계와 관련된 '왜?'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 풀이]

테마(theme): 창작이나 논의의 중심 과제나 주된 내용. '주제'로 순화